

4R 11언더...김효주 日골프 평정

산토리 레이디스 우승

여고생 골퍼 김효주(17·대원외고2)가 한국에 이어 일본에 이어 일본의 여자 프로골프까지 정복했다.



김효주는 10일 효고현 룩코 국제골프장(파72·6511야드)에서 열린 일본 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산토리 레이디스 오픈(총상금 1억엔) 마지막 라운드에서 무려 11타를 줄이고 최종합계 17언더파 271타(71 71 68 61)로 최연소 우승을 차지했다.

2위인 사이키 미키를 4타 차로 따돌렸다. 그러나 우승상금 1천800만엔(약 2억6700만원)은 김효주가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사이키의 몫이 됐다.

김효주가 올 들어 14번째인 이 대회에서 우승함에 따라 한국 남자들의 JLPGA 시즌 승수는 7로 늘었다. 아마추어 초청 선수로 참가한 김효주는 쟁쟁한 프로 언니들을 제치고 이룬 우승으로 일본 무대에도 이름을 확실하게 알렸다.

김효주는 아마추어 자격으로 한국과 일본의 오픈대회를 석권하면서 JLPGA 투어에서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웠다. 김효주는 미야자토가 당시 단점여자오픈에서 기록한 JLPGA 최연소(18세101일) 우승 기록도 갈아치웠다.

김효주의 나이는 16세332일이다. 김효주가 최종 라운드 스코어로 적어낸 61타는 JLPGA 투어 '18홀(라운드) 최소타' 기록이 됐다. 종전 기록은 구옥희가 세운 62타였다.

김효주는 아울러 자신이 프로 대회에서 세운 라운드 최저타 기록(기존 7언더파 65타)을 이번에 4타나 경신했다. /연희뉴스

광주시청 육상팀 금3·은3 획득

전국육상선수권대회

광주시청 육상팀(감독 심재용)이 제66회 전국육상선수권대회에서 금3, 은3의 성적을 거뒀다.

광주시청 400m 계주팀(이준화·김민균·송만석·임희남)은 9일 대전공설운동장에서 끝난 전국육상선수권대회에서 41초에 레이스를 끝내며 41초02의 과천시청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높이뛰기에 출전한 이성은 2m16을 뛰어 넘어 대회 첫 금메달을 안겨준 100m 김민균에 이어 금메달리스트 대열에 합류했다.

부상에서 돌아온 국가대표 김덕현은 멀리뛰기 은메달을 획득했고, 박태경과 박영식은 각각 110m 허들과 해머던지기에서 은메달을 추가했다.

이번 대회에서 무더기 입상에 성공하며 국내 최고 실업팀의 위용을 과시한 광주시청은 런던 올림픽 출전권 획득을 위한 마지막 고삐를 당길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시장기 생활체육축구대회 개막

4000명 참여 열린 경쟁

축구동호인들의 열전이 시작됐다. 제16회 광주시장기 생활체육축구대회가 10일 광주월드컵보조경기장에서 강운태 광주시장, 광주 FC 최만희 감독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식을 갖고 막을 올렸다.

2002 월드컵 4강 1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대회는 광주시생활체육회가 주최하고 광주시생활체육축구연합회가 주관하며 4000여명의 동호인이 참가해 직장부·50대부·여성부 등 5개부에서 오는 17일까지 열린 경쟁을 벌이게 된다. 여성축구단과 외국인 직장인팀 등도 참여해 동호인간의 친선과 화합을 다질 예정이다.

광주시생활체육회 김창준 회장은 "2002년의 감동과 축구에 대한 열기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대회를 통해 생활체육 축구에 대한 동호인들의 관심이 광주 FC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



고개속인 에이스 10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KIA 대 롯데 경기. 3회말 2사 만루에서 롯데 황재균으로부터 2타점 안타를 맞은 KIA 선발 윤석민이 고개를 숙이며 걸어가고 있다. /연희뉴스

도 대체 왜?

에이스 윤석민 롯데전서 또 3이닝 5실점
 무기력 피칭에 팬 실망... KIA 3-6 패배



윤석민이 '사직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KIA 타이거즈의 에이스 윤석민이 10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3이닝 5실점으로 조기 강판됐다. 팀은 2·6회 타진 안치홍과 이범호의 1타점 적시타와 7회 한성구-이준호·윤완주 신예 선수들이 합작한 1점으로 추격에 나섰지만 마운드가 일찍 무너지면서 3-6으로 패를 기록했다.

2010시즌 조성환의 사구로 효력을 처했던 윤석민은 2년만의 사직 선발 등판에서 다시 또 고개를 숙였다. '자해소동'으로 오른손이 골절됐던 2010년, 조기 복귀를 했던 윤석민은 홈경기가 열렸던 8월15일 롯데 홍성흔의 손등에 이어 24일 사직 경기에서 조성환의 머리를 맞으며 폭풍의 중심에 섰다.

사직에서의 선발 등판은 2010년 4월 21일 이후 2년만 지난해에는 선발이 아닌 중간으로 2이닝을 던진 적이 있다.

몸쪽 승부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지난해 투수 4관왕의 자리에까지 오른 윤석민이지만 사직에 대한 기억을 바꾸지는 못했다.

1회 롯데의 테이볼세터 전준우·김주찬에게 탈삼진을 뽑아낸 윤석민은 손아섭에게 2루타를 맞았지만 강민호를 3루수 앞 땅볼로 잡아내며 실점 위기를 넘겼다.

2회에는 6개의 공으로 3개의 아웃 카운트를 잡아내며 후부를 예고했지만 3회 신민기의 볼넷 화근이 됐다.

투스트라이크 노볼의 유리한 볼카운트에서 볼넷을 내준 윤석민은 1사 2루에서 롯데 투타자 전준우의 적시타에 1-1 동점을 허용했다. 김주찬의

역전 투런포가 이어지면서 1-3. 롯데의 공세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초구에 손아섭에게 2루타를 허용한 윤석민은 강민호의 볼넷, 조성환의 우전안타로 1사 만루의 위기에 몰렸다. 간신히 박준서를 삼진으로 돌려세웠지만 이번에는 황재균의 2타점 적시타가 터지면서 점수는 1-5까지 벌어졌다.

윤석민은 타자 일순하며 다시 타석에 들어선 신민기를 2루수 플라이로 잡아낸 뒤에야 험난했던 3회를 마감했다. 4회부터 좌완 양현종이 마운드를 넘겨받으면서 윤석민의 기록은 3이닝 6피안타(1홈런) 2사사구 3탈삼진 5실점. 시즌 방어율은 2.64에서 3.19까지 뛰어올랐다.

KIA는 전날 연장 승부 끝에 간신히 롯데전 12연패를 탈출했지만 에이스가 위기상황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면서 분위기를 살리는 데 실패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일고 2연승

고교야구 주말리그

광주일고가 주말리그 광역리그에서 2연승을 달렸다.

광주일고는 10일 세광고구장에서 열린 청주고와의 주말리그 광역리그 경기에서 장단 12안타를 때려내며 8-3 승리를 거뒀다.

1회초 세광고 김승현의 희생플라이로 선취점을 내줬던 광주일고는 이어진 1회말 공격에서 채지선의 선투타자 홈런을 시작으로 공세를 펼치며 대거 5점을 뽑는데 성공, 승기를 잡았다.

순천 효천고도 충주성심을 상대로 7회 8-1 풀드승을 거두며 광역리그 전적이 2승1패가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학창초 KIA 타이거즈기 우승

호남 초등학교 야구대회

학창초가 제9회 KIA 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초등학교 야구대회 정상을 밟았다. 학창초는 지난 8일 광주 분당리블구장에서 열린 대성초와의 결승투수를 3-3 원점으로 돌렸다.

4회가 승부처가 됐다. 학창초가 상대 실책과 이현서의 솔로포를 더해 4점을 뽑는데 성공하며 7-3의 승리를 거뒀다. 2번 타자 김창평과 4번 타자 송진익이 각각 3타수3안타 2타점, 4타수3안타 1타점의 맹활약을 하며 팀

에 우승컵을 안겨줬다. <개인상 수상자> ▲최우수선수상 = 최지석(학창) ▲우수 투수상 = 임재경(학창) ▲최다 홈런상 = 이영기(2개·대성) ▲최다 타점상 = 김창평(9타점·학창) ▲감투상 = 한민호(대성) ▲타격상 = 김윤식(0.750·서석) ▲최다 안타상 = 김창평 (9안타·학창) ▲최다 도루상 = 김창평 (10개·학창) ▲수훈상 = 김동은(학창) ▲미기상 = 지강혁(서석) ▲감독상 = 최태영(학창) ▲공로상 = 이기성(학창) ▲지도상 = 이주범(학창) ▲심판상 = 서한중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Hole in one and Dynasty Zon EVENT

기간 | 2012년 6월부터 ~ 종료시 까지
 내용 | 지정출입원 및 다이내스티존 성공시 혜택
 대상 | 주중 내정팀에 한함

Hole in one	
임페리얼 7번홀	● 혜택
마제스티 12번홀	팀 전원 그린피 면제
팰리스 20번홀	(개별소비세, 카트비 별도)
Dynasty Zon	
팰리스 27번홀	● 혜택
	팀 전원 300cc 생맥주 제공

▶ 햄핑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호남제일 음식문화를 사랑하는 아리랑하우스 여/름/메/뉴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준비하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 - 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